

학부모 소식지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주간(6월 3주)

발행인 김현철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7층 TEL 044-415-2401 FAX 044-415-2369

메타버스(Metaverse) 속 자녀(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학부모(보호자)의 역할

부세대에게는 현재 살아가고 있는 현실 공간(Real World)은 삶의 터전이고, 삶에서 활용하는 각종 정보통신기술은 생활의 수단일 뿐입니다. 그러나 자녀(아이)들은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 공간 외에도 메타버스(Metaverse) 등 정보통신기술 속 공간에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에서 자녀(아이)들은 나이, 성별, 신체, 외모 등 현실공간 속 자신의 모습은 전혀 드러내지 않으면서 스스로가 설정한 아바타의 모습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에서는 성인도, 청소년도, 아동도, 심지어 AI까지도 자유롭게 공존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메타버스에서는 국가가 현실공간처럼 강력한 안전을 보장해줄 수 없다보니, 자녀(아이)들이 사이버폭력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자녀(아이)들은 잘못된(호기로운) 행동으로 인해 또래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어른들의 표적이 되어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사이버 언어폭력뿐 아니라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따돌림 등 다양한 유형의 사이버폭력이 자녀(아이)의 스마트폰 속에 기생하는 것입니다. 현실공간에서는 학부모(보호자)의 보호와 통제가 가능할 수 있지만 메타버스에서 학부모(보호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녀(아이)들에게 메타버스는 중요한 삶의 공간이므로 무조건 금지할 수도 없습니다.



이원상 교수
조선대학교 법학과

따라서 학부모(보호자)님들은 자녀(아이)들에게 다음 세 가지는 꼭 주시게 주어야 합니다. **첫째**, 메타버스에서 만나는 아바타들과 개인신상정보나 개인사진 및 동영상 등을 공유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범죄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장난이라도 거친 욕설을 하거나 누굴인지 특정할 수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한 소위 뒷담화를 조심하도록 해야 합니다. 쉽게 사이버 언어폭력에 가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메타버스에서 어려움이나 문제가 발생하면 반드시 학부모(보호자)나 신뢰관계 있는 어른에게 바로 알리도록 해야 합니다. 작은 갈등이 범죄로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메타버스는 더욱 발전하고 확대될 것이므로 부모님들이 메타버스를 경험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자녀(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고, 직접경험에 따른 조언과 대응이 가능하게 됩니다. 즉, 메타버스 속 자녀(아이)의 안전을 위해 학부모(보호자)는 메타버스 속 이방인이 아니라 원주민이 되어야 합니다.

*메타버란 현실을 넘어 구현된 가상의 세계를 의미하며, 초월, 가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세계,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입니다. 메타버스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와 똑같은 사회·경제·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3차원의 가상세계로, 아바타를 통해 사회적 관계 형성, 가상 쇼핑 등 편리하고 다채롭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가상세계 속 다양한 말이나 글을 통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등의 사이버폭력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최근 일어나는 사이버폭력에 대해 알아볼까요?

초·중·고(초4~고2)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부의 '2021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에서 사이버폭력의 비중이 2019년 8.2%에서 2021년 10.8%로 증가하였으며, 피해 유형은 사이버 언어폭력 > 사이버 명예훼손 > 사이버 따돌림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이버 언어폭력



채팅방, 게시판 등에 상대를 비방하거나 악성댓글, 욕설 등을 올리는 행위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공간에서 특정 상대를 대화에 참여시키지 않거나 채팅방에서 퇴장을 못하게 하는 등의 행위

사이버 갈취



사이버 머니, 금품갈취형으로 주로 와이파이 셔틀, 게임머니 등 사이버 상의 갈취 형태의 괴롭힘

사이버 영상 유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의 동의 없이 사생활 관련 개인의 신체부위나 각종유해성 사진, 영상 등을 전송·유포하여 괴롭히는 행위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이버폭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조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으로부터 자녀(아이)를 보호하려면?

자녀(아이)의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고, 사이버폭력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자녀(아이)에게 지속적으로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처 방법을 지도해주세요.

1 사이버 공간에 글을 올릴 때는 신중하게 생각하도록 합니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상대의 얼굴 표정이나 감정을 직접 보지 않고 글과 이모티콘으로 등으로 소통하기 때문에 글을 올릴 때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다시 확인하도록 지도합니다.


2 사이버 공간에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도록 합니다.
인터넷 게임이나 SNS를 하면서 느꼈던 부정적 감정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자녀(아이)만의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대화합니다.

3 사이버폭력을 당하거나 발견하면 보호자(학부모, 교사)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사이버폭력 상황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화면을 캡처하거나 사진을 찍어서 보호자(학부모, 교사)에게 알려 도움을 요청하도록 합니다.

4 개인정보 보호 방법과 사이버 공간에서의 안전 수칙을 알려줍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자신의 이름, 주소, 학교 등 개인정보를 알려 주지 않도록 지도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 봅니다.

사이버폭력에 노출된 자녀(아이)에게 이렇게 지지해주세요.

1 자녀(아이)가 폭력으로 인해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당장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억지로 채근하지 말고 이야기할 준비가 되거나 편하게 말할 수 있을때 까지 기다려 주세요.



💡 자녀(아이)도 사실을 이야기 하는 게 수치심이 들고, 학부모(보호자)가 알게 되면 화를 내거나 걱정할까봐 두려울 수 있습니다. “네가 빨리 이야기해야 우리가 해결을 해줄 거 아니야.” 등 재촉하기보다 자녀(아이)가 편하게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2 자녀(아이)의 행동에 대한 어떠한 판단도 멈춘 채로 현재의 상태와 상황을 바라봐 주세요.



어제 잠을 못 자고 힘들어 하는 것 같는데 무슨 일 있니?
사실은... 친구와 게임을 하다가 오해가 생겼어요.
그랬구나~ 지금 기분은 어때?
“네가 뭐 잘못된 거 아니야?” 등 자녀(아이)를 책임지거나 폭력의 원인을 자녀(아이)에게 돌리는 말은 지양하고, “그랬구나. 지금 기분이 어때니?”와 같은 개방형 질문을 합니다.

3 충분히 함께 공감하면서 말해준 것에 대해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그동안 힘들었을 자녀(아이)를 위로해주세요.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난감하고 속상하기도 해요.
혼자서 많이 힘들었겠구나. 말하기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얘기해줘서 고마워.
“자녀(아이)가 그동안 겪었을 힘들음에 대해 진심으로 위로하고, 자녀(아이)의 의견과 이야기를 존중하여 신뢰감을 형성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안정감을 주어야 합니다.”

4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질문을 통해 이끌어주세요.



너를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겠니?
친구랑 만나서 직접 이야기 하고 오해를 풀고 싶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부모가 주도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네가 생각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니?”, “어떻게 도와주는 것이 좋겠니?” 등 자녀(아이)의 욕구에 충분히 귀기울이며 함께 해결해나가도록 합니다.

*출처: 김승혜 외(2021). 장난이 폭력이 되는 순간. 담당사무소

학교폭력 예방교육 소식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발대식 개최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은 학교와 지역사회에 학교폭력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한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주체적으로 학교폭력 예방 활동들을 전개하는 학생지원단입니다.

2022년 6월 17일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의 주최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에서 전국 32개팀 368명의 학생이 참여하는 제2회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발대식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함께 실천하는 사이버폭력 예방,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대응 가이드」발행

신종 사이버폭력 등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교육부를 포함한 7개 정부 부처 6개 기관에서 참여하여 개발한 「함께 실천하는 사이버폭력 예방,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대응 가이드」가 2022년 2월 발행되었습니다.

가이드에는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처 방법, 상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를 통해 유아와 청소년 자녀(아이)의 스마트폰 사용 습관 진단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http://m.site.naver.com/OWWX1

가상공간에서체합하는 학교폭력 예방활동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역량을 키우면서 학생들의 참여와 흥미를 높일 수 있는 메타버스 기반 사이버폭력 예방 교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PC나 스마트 기기를 사용해 접속하여 사이버폭력 유형에 대한 퀴즈를 풀고, 스테이지에서 미션을 완료하며 자연스럽게 사이버폭력 예방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구이며, 2022년 시범운영에 들어 갑니다.



사이버폭력 신고 및 상담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안전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http://m.site.naver.com/0RfX3

**사이버1388
청소년상담센터**
키키오목 채널에서
카카오톡 상담,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서 사이버 상담



http://m.site.naver.com/OWWXK

학부모 참여 이벤트

QR코드에 의견을 간단히 작성해주세요.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이벤트 참여기간
2022.6.13.~2022.7.15.

자녀(아이)의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해
교육부나 교육청에
제안하고 싶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http://m.site.naver.com/OWXek

